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대한민국 - 2025 투자자 기후 전환 현황

AIGCC 의 ‘2025 아시아 투자자 기후 전환 현황 보고서’에
기반한, 한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기후 대응 진척 상황 요약.

2025 년 7 월 발행

✉ info@aigcc.net

🌐 www.aigcc.net



목차

분석 방법 요약	3
한국 데이터 세트	3
아시아 전체 데이터 세트	3
요약본	4
한국 맥락	5
기후 거버넌스 (Climate Governance)	6
기후 투자 (Climate Investment)	7
기후 관련 기업 관여 (Climate Corporate Engagement)	9
기후 공시 (Climate Disclosures)	10
기후 정책 옹호 활동 (Climate Policy Advocacy)	11
핵심 요점	12
AIGCC의 한국 내 지속적인 활동	12
AIGCC 소개	14

연구 방법 요약

한국 데이터 세트

- 영향력 있는 주요 기관투자자 18 곳¹
 - 자산소유자 13 곳
 - 자산운용사 5 곳
- 총 운용자산: 미화 2.1 조 달러 (약 2,863 조 원)

아시아 전체 데이터 세트

- 영향력 있는 주요 기관투자자 230 곳²
 - 자산소유자 113 곳
 - 자산운용사 117 곳
- 중간 운용자산 규모: 미화 1,000 억 달러
- 총 운용자산: 미화 100 조 달러 (약 13.6 경 원)

AIGCC 는 투자자의 기후 행동을 다음의 핵심 축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Investor Climate Action Plans \(ICAPs\) Ladder](#)에서 도출된 항목입니다:

- (1) 거버넌스 (Governance),
- (2) 투자 (Investment),
- (3) 기업 관여 (Corporate Engagement),
- (4) 공시 (Disclosure),
- (5) 정책 옹호 (Policy Advocacy).

이 다섯 가지 실행 영역은 모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¹ 본 리뷰에 포함된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Willis Towers Watson's Thinking Ahead Institute The Asset Owner 100 – 2024; Thinking Ahead Institute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rs – 2024; Caproasia 2022 Top 100 Asset Owners Ranking; SWFI Top 100 Largest Insurance Rankings by Total Asset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지역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현지 시장 자료; <https://www.statista.com>;

<https://www.asiaasset.com>; 그리고 각 시장에서 AUM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고르게 포함하기 위한 국내 웹사이트 등.

² 앞과 동일.

요약본

아시아 전역의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재무적으로 중대한 이슈임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후 거버넌스'와 '기후 공시' 측면에서 특히 투자자의 기후 대응 진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후 행동 지표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아시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 부문이 발달한 선진 시장으로서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투자'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직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자본 배분, '기후 정책 옹호', '기후 기업 관여'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와 광범위한 경제 전반을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재무적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부 글로벌 규제 당국의 강력한 관심과 아시아 전역에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 전환 및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 간의 기후 대응 격차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결과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기후 대응 실행에 있어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를 투자자,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주요 과제와 격차를 함께 드러냅니다.

한국 맥락

한국 경제는 농업, 해안 지역,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³ 고배출 시나리오 하에서는 폭염이 현재보다 1,563% 더 길게 지속되고, 농업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며, 해수면 상승으로 약 600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험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GDP의 3.73%에 달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며, 저탄소 정책과 기후 적응이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녹색 투자 인센티브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춰 리스크를 줄이고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판결과 '기후미래포럼'의 출범과 같은 주요 이정표는 보다 강력한 규제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곧 발표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한국의 에너지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국가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자금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³ Centro Euro-Mediterraneo sui Cambiamenti Climatici (n.d.) G20 기후 리스크 아틀라스: 대한민국. 이용 가능: <https://www.g20climaterisks.org/republic-of-korea/> (접근일: 2025년 2월 7일).

기후 거버넌스 (Climate Governance)

아시아 전역의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기업지배구조에 통합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 프로세스와 리더십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우선순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적으로 중대한 투자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도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데 있어 아시아 평균 수준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운용자산 1.2 조 달러를 대표하는 67%의 투자자들이 투자 정책에 기후 관련 요소를 통합하고 있으며, 56%는 이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감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산운용사가 모든 거버넌스 관련 지표에서 자산소유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반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영역: 거버넌스	한국 투자자 평균	아시아 전체 투자자 평균	자산소유자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AIGCC 회원사 평균
표본 수	18	230	113	117	62
기후 리스크/기회 인식	78%	75%	59%	90%	100%
투자 내 기후 통합 (Integration)에 대한 정책	67%	66%	51%	81%	95%
기후변화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56%	63%	50%	77%	94%
기후 성과와 인센티브 연계	17%	23%	13%	32%	47%
기후 전환 계획 공개	23%	35%	20%	50%	37%

참고: 위의 백분율은 해당 기준을 '달성' 또는 '부분 달성'한 투자자의 비율로, 지표별 정교함, 포괄성, 실행력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데이터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여전히 거버넌스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후 성과와 경영진 보상의 연계(17%), 종합적인 투자자 전환 계획의 수립(23%)과 관련한 항목에서 미비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의 통합 관리에 주력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선도하는 입장에서의 이점이 분명한 존재합니다.

기후 투자 (Climate Investment)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내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솔루션 및 기후 정렬 투자에 점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투자자의 34%는 넷제로 포트폴리오 달성을 약속했으며, 28%는 기후변화 솔루션 또는 전환 금융에 대한 투자 목표를 설정했거나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행 분야: 투자	한국 투자자 평균	아시아 전체 투자자 평균	자산소유자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AIGCC 회원사 평균
표본 수	18	230	113	117	62
넷제로 포트폴리오 배출량 약속	34%	43%	34%	52%	75%
포트폴리오 배출량 중간 감축 목표	22%	36%	25%	47%	71%
넷제로 투자자 이니셔티브 서명	22%	26%	11%	41%	55%
기후변화 솔루션 투자	28%	35%	34%	35%	56%
자산 정렬 목표	6%	25%	11%	38%	55%
화석연료 또는 고배출 부문에 대한 정책	39%	43%	28%	58%	92%
산림 파괴에 대한 정책/전략	0%	21%	9%	32%	57%
생물다양성 또는 자연 관련 공시/전략	28%	33%	22%	44%	66%

참고: 위의 백분율은 해당 기준을 '달성' 또는 '부분 달성'한 투자자의 비율로, 지표별 정교함, 포괄성, 실행력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기후 정렬 투자 및 정책은 여전히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산림 파괴 방지나 자연 관련 정책, 전략, 공시를 채택한 투자자는 극히 적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자산 수준에서 정렬 상태를 측정하거나 자산 정렬 목표를 설정한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기후 전환에 대한 자산 소유자의 약속은 자산운용사의 자산

배분과 책임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의 자산 소유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후 요구사항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이끌 여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솔루션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저탄소 솔루션을 확대하려는 투자자에게는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넷제로 경로에 정렬시키고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노출을 완화하고, 탄력적이고 저탄소인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 관련 기업 관여 (Climate Corporate Engagement)

기업 관여는 한국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 투자자의 17%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관련 기업 관여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기후 관여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표한 한국 투자자는 6%에 불과하며, 이 사례들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의 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보여주어야 할 기업 수탁 활동과 리더십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행 분야: 기업 관여	한국 투자자 평균	아시아 전체 투자자 평균	자산소유자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AIGCC 회원사 평균
표본 수	18	230	113	117	62
스튜어드십/기업관여 관련 연간 보고서 발간	17%	39%	27%	50%	66%
기업관여 결과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발간	6%	30%	20%	37%	50%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내 기후/넷제로 관련 항목 포함	11%	34%	16%	52%	73%
기후 기업 관여 이니셔티브 활동	6%	36%	19%	52%	77%
기후 기업 관여 목표 설정	6%	20%	7%	32%	44%

참고: 위의 백분율은 해당 기준을 '달성' 또는 '부분 달성'한 투자자의 비율로, 지표별 정교함, 포괄성, 실행력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 관여 관련 지표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관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내 주요 배출 기업과의 관여 활동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고, 자산 소유자는 자산운용사의 관여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후 성과 향상을 위해 포트폴리오 기업들과의 능동적인 관여 전략을 활용하는 데 점점 더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공시 (Climate Disclosures)

한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연례 기후 공시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후 변화의 재무적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후 공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절반(50%)이 기후 관련 공시를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 투자자의 54%와 비교되며,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 투자자의 44%가 포트폴리오 내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공시했으나, 기후 리스크에 대응한 회복력 강화 및 적응 조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 분야: 공시	한국 투자자 평균	아시아 전체 투자자 평균	자산소유자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AIGCC 회원사 평균
표본 수	18	230	113	117	62
포트폴리오 배출량 공시	33%	37%	26%	47%	71%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개	28%	44%	28%	59%	88%
ISSB/TCFD 관련 공시	50%	54%	39%	69%	87%
물리적 리스크 및 적응 조치에 대한 공시	44%	43%	28%	58%	74%

참고: 위의 백분율은 해당 기준을 '달성' 또는 '부분 달성'한 투자자의 비율로, 지표별 정교함, 포괄성, 실행력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후 공시의 질과 범위는 투자자마다 크게 다릅니다.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공시는 특히 자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공시 수준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내 많은 자산 소유자들은 아직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및 통합도 비교적 낮은 수준(28%)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사결정 및 적극적 주주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 옹호 활동 (Climate Policy Advocacy)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기후 목표 정렬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그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기후 정책 옹호 활동을 수익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책임 연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정책 관여 활동을 공시하는 투자자는 여전히 드문 상황입니다.

실행 분야: 정책 옹호	한국 투자자 평균	아시아 전체 투자자 평균	자산소유자 평균	자산운용사 평균	AIGCC 회원사 평균
표본 수	18	230	113	117	62
기후 정책/규제에 대한 옹호 활동	0%	25%	14%	35%	67%
기후 정책 옹호 활동의 투명성	0%	7%	5%	10%	19%
기후 정책 입장에 대한 공동 지지	0%	23%	8%	38%	61%

참고: 위의 백분율은 해당 기준을 '달성' 또는 '부분 달성'한 투자자의 비율로, 지표별 정교함, 포괄성, 실행력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한국 투자자 중 기후 정책 옹호 활동에 참여했음을 밝힌 곳은 없으며, 기후 목표 정렬 정책 옹호 활동을 공시하는 경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는 AIGCC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가이드 제공, 정부와의 교류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영역입니다. AIGCC의 [정책 옹호 워킹그룹](#)과 [한국 워킹그룹](#)이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아시아 전역의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기후 대응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글로벌 경제가 넷제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점진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정교하고 구체적인 기후 전략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역 전반에서 아직 충분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IGCC의 한국 내 지속적인 활동

AIGCC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필수적인 핵심 기후 전략 영역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AIGCC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관련 브리핑, 뉴스, [분석 자료](#) 및 인사이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GCC 아시아 투자자의 기후 전환 현황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AIGCC에 대한 문의는 info@aigcc.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단지 참고용이며,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 법률, 세무 또는 기타 자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투자 또는 기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에서 표현된 의견, 권고사항, 결과, 해석 및 결론은 AIGCC의 것이며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AIGCC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출처로부터 취득되었도록 노력하였으나, 통계, 법률, 규칙 및 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지연, 누락 또는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GCC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 결정 또는 조치,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되며,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 또는 사용 결과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IGCC 소개



AIGCC 소개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은 아시아의 자산소유자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저탄소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조직입니다.

AIGCC 는 기후 변화와 순배출 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글로벌 논의 속에서 아시아 투자자의 관점을 대표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입지를 가진 AIGCC 는 정부 연금,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기금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AIGCC 는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이 기후 변화 관련 투자 활동, 리스크 관리, 관여 활동 및 정책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선도적인 포럼을 제공합니다.